

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2011, 인천

incheon

incheon

상륙작전

2011. 03. 12(토) – 2011. 05. 29(일)

인천아트플랫폼 크리스탈 큐브, B동 전시장 외

operation

operation

landing

EXHIBITION

2011. 3. 12(토) – 5.29(일)

10:00am – 6:00pm (일-목요일)

10:00am – 8:00pm (금, 토요일)

인천아트플랫폼 크리스탈, B동 전시실 외

OPENING CONCERT

ECLIPSE 공연 연주

1. 달 그림자 (Moon Shadow)

2. Black Shadow

작곡 및 지휘 이재신/ 플룻 이준서/ 바이올린 이지윤

비올라 최지은/ 첼로 이창현/ 피아노 윤경록/ 나레이션 박하민

OPEN STUDIO

2011. 4. 30(토) – 5. 1(일)

1:00 – 6:00 pm

인천아트플랫폼 E동, 아트&디자인 스튜디오

PLATFORM GARAGE SALE

2011. 4. 29(금) – 5. 1(일)

1:00 – 6:00 pm

인천아트플랫폼 E1동, 공동작업실

인사말

인사말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3월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 번 마음이 부풀고 희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릅니다. 아마도 지난 겨울이 혹독히 추웠고 국내외에 여러 가지 굵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위치한 중구 해안동 일대는 근대 열강의 각축장이자 신문물의 유입장소로 역사의 명과 암을 모두 간직하고 있는 흥미로운 곳입니다. 이제 이 곳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만개한 꽃으로 거듭날 예술의 새싹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울 주인공들은 바로 2011 인천아트플랫폼 2기 레지던시 입주작가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 2기 작가들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 소개의 장으로 2기 작가들의 프리뷰 전시인 <2011, 인천상륙작전(作展)>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시된 2기 입주작가의 대표 작품 혹은 신작들을 보며 앞으로 이 오래된 창고에 예술이 만개할 날을 기다려 봅니다.

입주 예술가들로 인해 앞으로 인천아트플랫폼에는 사람과 사람간의 만남이 잦아지고, 그로 인해 사랑을 포함한 감정이 쌓이고, 미학에 대한 담론이 생성되고, 시민과 예술가의 경계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각양각색의 예술형태가 충돌하고 재결합하여 또다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것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에는 어떤 담도 없습니다. 이 유서깊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저희 인천아트플랫폼과 예술가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새로운 시도를 독단이 아닌 협력과 공존의 방법으로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아트플랫폼과 예술가가 만들어가는 사건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이승미



2001년 서강대학교 철학/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였다. 스튜디오 Style Impact 사진가, 국민일보와 쿠파뉴스 인터넷 뉴스부 객원 사진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갤러리 공간 루에서 전시한 바 있다.



잊혀진 것 II(The Forgotten II), 디지털 프린트, 67x67cm, 2010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스며든 수많은 다른 피부색의 타인과 마주친다.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을 아우를 포용력과 이해력, 상호존중의 자세를 갖추고 있을까? 백인과 흑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아메리칸 니그로와 아프리카 니그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유럽인과 동남아시아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조선족과 새터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조선족 한국인과 재일동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과연 양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잣대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나는 강한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다.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0년 1회 개인전 〈시각적 봉입장치〉(서남미술관)에서 ‘보는 것’, ‘착시’, ‘시각의 문제’ 등을 다루는 영상, 설치 작업을 발표하였고 ‘벽 너머의 저편’, ‘비가시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의 작업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영화를 재매개화 시키는 연작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영웅들의 섬(Heroes of the island), 비디오 루프, 2011

작전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영웅이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된다. 6.25전쟁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은 분단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한국의 현대사를 대변하는 상징적 아이콘이 되었다. 작가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상징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에게 팝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영화에서 찾으려 한다. 〈영웅들의 섬〉은 작가에게 역사적 영화 영역(Cinematic Region)이 된다.

김태준

KIM Tae-jun

인천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독일의 신표현주의에 매료되어 독일로의 유학을 결심하였다. 베를린 예술대학교(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를 졸업하고 다시 카셀 미술대학교(Kunsthochschule Universität Gesamthochschule Kassel) 조형예술학과(plastic arts)에 입학하였다. 1999년에 중국의 북경 중앙미술대학, 사천미술대학, 남경미술대학 등에서 국제교류 세미나를 하였고, 그 후 2001년에는 카셀 미술대학교와 사천미술대학교의 교류전시에 관계하여 일을 하였으며 2002년, 2004년, 그리고 2009년에 중국에서 초빙교수로 강의 하였다.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그 동안의 경험과 학업을 바탕으로 서양화, 새로운 매체 등에 관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는 개인적인 작품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행동했던 기억, C-print, 80×136cm, 2010

계명대 광장은 과거 많은 대학생들의 토론과 항쟁의 장소였다.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학생들은 이곳에서 행동에 나서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보았다. 여기에 나타나는 새는 마치 마라톤을 하면서 반 바퀴를 마치고 분기점을 도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에 중간에 서있음을 의미하고 회전하기 위한 역동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새의 날개 위쪽으로는 희미하게 펼쳐진 책이 담겨있다.

나는 과거에 지녔던 역사의 흔적이나 설화 등의 내용을 현재의 장소와 결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장소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 뒤 과거에 이 장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컴퓨터나 기타 미디어 장비를 이용하여 중첩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관객들이 한국의 역사를 작품을 통해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평가를 내리게 하고 싶다.

김혜지

KIM Hea-ji

2001년 이화여자대학교 조소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런던대학교(University Art London)와 첼시 예술 디자인 대학(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 조각과(Sculpture)를 졸업하였다. 이후 2008년 부산비엔날레 북미지역 담당 코디네이터와 2009년 Futur Text 아티스트 그룹 창설 멤버로 활동했다. 2010년부터 예술가 운영공간인 문래동 벡터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성 전시와 소규모 전시를 기획/전시하고 있다.

07



소녀배우기(Celebration of Girlishness), 퍼포먼스 비디오 기록 영상, 5분, 2010

‘소녀배우기’ 프로젝트는 소녀라는 상징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여성작가 5명이 소녀시대의 안무를 배우는 적극적 개입의 과정을 담은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 작업이다. 이 시대에 여성으로 살면서, 여성성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지 특히 모든 여성이 한번쯤 겪었을 ‘소녀’에 대하여 어떤 기억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 보는 기회를 갖고 싶었다.

내 작업의 관심사는 미디어에 드러난 아이콘들이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어떤 맥락에서 사회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또한 아이콘의 파급 효과와 그것이 다시 미디어에 영향을 주는 역순환에 관심이 많다. 대중문화와 순수미술의 공감은 이러한 접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프로젝트에 녹여보았다.

다나 올라레스큐

Dana Olarescu

다나 올라레스큐는 루마니아 부다페스트의 국립예술학교(National University of Theatre and Film)을 졸업하고 영국의 골드스미스대학교(Goldsmiths University)에서 공연 창작(Performance Making)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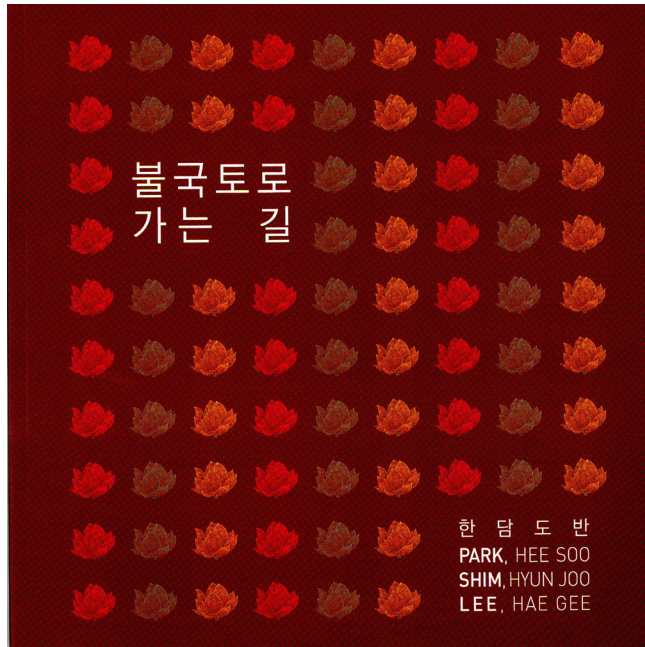
집은 스틸사진들이 있는 곳...(Home is where the stills are...), 퍼포먼스 기록 비디오, 6분 34초, 2010

나의 관심사는 연극처럼 꾸민 행동, 비언어 연극, 마임, 거리예술, 강아지, 펀치 앤 주디(Punch and Judy), 모더니즘, 초기 재즈, 러시아 문학, 무성 영화, 서커스, 강한 신체 훈련, 새로운 연극 공간의 발견, 과도한 화장, 그리스 연극, 신화, 전통, 여행, 오래된 책 그리고 클래식 발레이다. 나는 현재 버려진 집을 찾아 그 공간에 맞는 극을 만드는 데 주목하고 있다. 연극성과 일상의 사물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작업으로 살아있는 동물, 물(水)과 여러 가지 도구가 사용된다. 음악과 소음, 심장 박동 사이에 발견되는 침묵과 고요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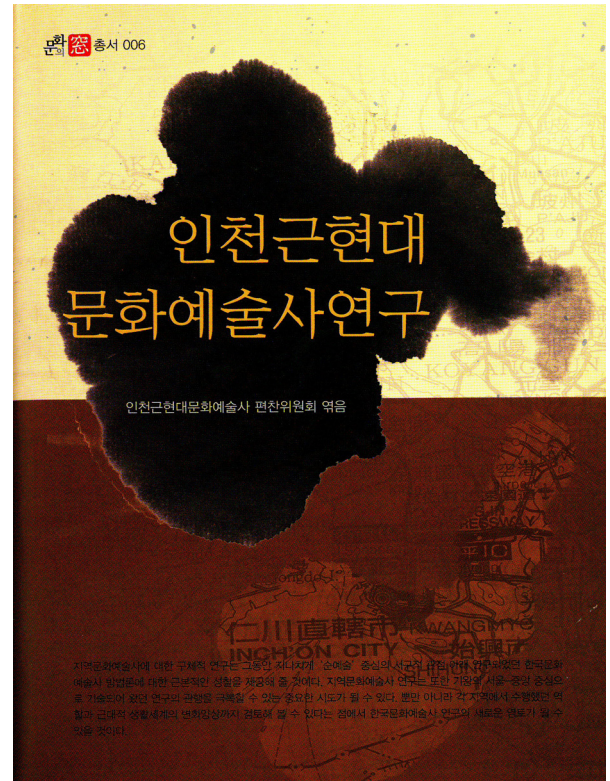
박석태

PARK Seok-tae

박석태는 서양화를 전공하면서 미술과 사회와의 만남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어 한국종합예술학교 미술이론과에 다시 진학하였다. 2003년 졸업 후, 2006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에서 「일제강점기 인천의 화단」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불국토로 가는 길, 미술평론, 2010



인천근현대 문화예술사연구, 공동저, 2009

인천미술사를 기술하는 데 초석이 되고자 「일제강점기 인천의 화단」이라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썼다. 자료의 빈곤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천미술의 역사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나아가 한국 현대미술사라는 커다란 범위 안에서 인천이 가지는 역동성 내지 특이점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활동에 주목할 때 입체적인 미술사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박영숙

PARK Young-sook

1962년 이마주어 사진작가로 시작하여 같은 해 숙명여대 사진동아리 '숙미회'를 구축, 첫 회장을 역임하였다. 1986년 숙명여대 산업대학원 사진 디자인과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술계에서 활동하면서 1988년부터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등 사진 작업으로의 페미니즘 아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미친년 프로젝트 2002 - 갇힌 몸 정처없는 마음, C-print, 100×100cm, 2002

‘미친년 프로젝트’는 여자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얼마나 억압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여자들을 대변하는 작업이다. 나의 새로운 작업 ‘그녀의 은밀한 것들’은 나의 기억의 것들, 그녀가 기억해야 할 것들, 그녀들이 눈만 감아도 떠오르는 노스텔지어적인 오브제들로 구성되어 진행될 작업이다.

박하민

BAAK Haa-min

박하민은 고려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문학과 미디어 아트를 수학했다. 그가 디자인한 예술 영화 '마지막 밥상', '허수아비들의 땅', '7월 23일' 등이 베를린 국제영화제, 칸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등에 초청을 받았다. 2007년부터는 '무빙 이미지그룹 반달'을 조직해 다원 예술 형태의 무대극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가 연출한 이클립스(ECLIPSE), 명(MUNG), '바다는 없다' 등이 다양한 곳에서 공연되고 있다.

11



이클립스(Eclipse), 공연 장면, 2010

박하민이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진행할 프로젝트는 인천항을 주제로 한 새로운 음악극 '레드 하버(RED HARBOUR)'를 완성하는 것이다. 항구가 가진 매력을 영상, 음악, 무용 등 예술의 여러 가지 형태를 결합하여 3가지의 테마로 제작하게 된다. 이 작품은 인천항이 주는 느낌을 한국적인 탱고의 선율로 표현하며, 바다와 배, 사랑하는 여인의 슬픈 이야기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크게 인천과 터키 등 세 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배진호

BAE Jin-ho

1985년 홍익대학교 조소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0년 제10회 배진호 개인전(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아트플랫폼 야외), 2009년 제9회 배진호 개인전(인천 신세계백화점 갤러리) 등 다수의 개인전과 2010년 인터_뷰전(인천아트플랫폼), 2010년 장춘 국제조각심포지엄(중국 장춘)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동행, F.R.P, 60×40×80cm, 2009

배진호는 찰흙으로 꼼꼼하게 사실주의적 형태를 빚은 다음 이를 유리합성수지로 캐스팅하여 조각을 떼내고 채색하는 작업 방식을 채택한다. 완성된 작품은 세련된 도시적 감수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듯 투박함의 정서를 드러낸다. 배진호는 작품이 풍기는 분위기 만큼이나 전통적 조각의 형태와 소재를 고집스럽게 탐구한다. 30여년 동안 한 분야(두상)에 매진해 온 그의 이력이 이를 말해 준다. 그의 작업은 엄청난 노동력을 요구한다. 예술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는 진지함과 성실함 그 자체이다.

사샤 폴

Sascha Pohle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립 순수 미술 아카데미인 슈테델 쿤스트 아카데미(Staatliche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Städtelschule)를 졸업하고 라익스 아카데미(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왕립 시각예술 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독일에서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유럽과 아시아, 미주 등지에서 다수의 그룹전, 필름페스티벌에 참여한 바 있다.

13



예술가의 재구성(Reframing the Artist), 비디오 루프, 40분, 2010

예술가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은 대개가 화가이다. 영화는 예술가의 디오니소스적 행동, 그들의 사랑이야기, 자기 파괴를 다루고 모델이나 학생, 아트딜러, 컬렉터와의 만남 같은 인간관계에 주목하며 예술 창작의 과정을 신비화 한다. 사샤 폴의 비디오 〈예술가의 재구성〉은 잭슨폴록이나 피카소 같이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50개를 중국 쑹젠 지방의 다펜이란 곳에서 재구성한 필름이다. 다펜은 서양화의 대량 복제 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다. 필름은 ‘예술가와 진정성’, ‘예술가와 시장’, ‘예술가와 위기’, ‘예술가와 학생’ ‘예술가와 모델’이라는 5개의 챕터로 구성된다. 작가는 이 영상을 통해 현대 예술가의 상(像)과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예술 인식의 역사적 변화를 탐구한다.

손혜민

SON Hye-min

손혜민은 2001년 경원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2008년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 (Goldsmiths University)의 예술석사학위(MFA in Art Practice)를 취득하였다. 2001년부터 꾸준히 영상, 설치, 사진 작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가 생산해내는 '환상 (mirage)'에 대한 '순응과 대응'의 참여한 지점을 찾아 시각화하고 있다.



나의 깃발(My Flag), 디지털 비디오, 4분, 2007

내 작업의 출발점은 기존의 풍경과 사회 환경에 대한 관찰로 시작되며, 그 관찰과 질문은 작업의 중요한 배경요소가 된다. 개인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나온 질문은 일상성에 내재된 제도화되고, 참여화된 정치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제스처 혹은 시나리오로 심화된다.

오민수는 2006년 인천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2010년 인천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개인전으로는 2010년 〈산수유람 展〉(갤러리 이레, 경기도 파주), 2009년 〈산수유람 展〉(갤러리 갈라, 서울), 2008년 〈혼재된 풍경-시간을 넘어서 展〉(정갤러리, 서울) 등이 있고 2010년 세상을 Drawing하다 展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09년 (EPOCHE-판단중지) (부평구청 内, 인천) 등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혼재된 풍경-아파트, 화선지에 수묵, 200x366cm, 2008

오민수는 일상 속에서 스쳐지나가는 기억들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공 구조물의 교감이나 인공 구조물간의 상호작용을 수묵 묘필과 전치법(轉置法)을 이용하여 평면 이미지로 재현해 내는 작업을 한다. 작가는 도시의 숲을 이루는 고층빌딩, 빠르게 진행되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 (시간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는 인공 구조물/ 문화재 구조물)들을 주의 깊게 살필수록 자연에 대한 갈증과 동경은 커져간다고 이야기한다. 작가가 동경하는 자연과 관찰을 통해 포착한 인공구조물은 작품 속에서 재구성되어, 과거와 현재의 감수성이 혼재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작가는 또한 수묵산수의 전통적으로 고정된 이미지에 현대의 인공적 이미지를 교차시켜 물체 상호간의 관계에 질문을 던진다.

오석근

OH Suk-kuhn

2005년 영국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Nottingham Trent University) 사진(photograph) 학과를 졸업하였다. 개인전으로는 2010년 <교과서(철수와 영희)> (블루 스카이 갤러리, 포틀랜드, 미국), 2008년 <교과서(철수와 영희)> (아트스페이스 휴, 서울) 등이 있고 국내외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교과서(철수와 영희) p19, 디지털 C-print, 26x32cm,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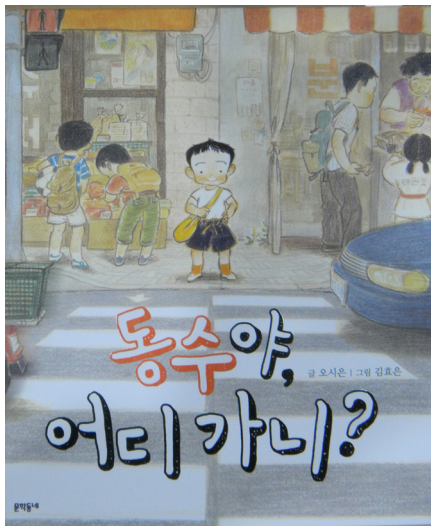
2006년부터 진행해오던 교과서(철수와 영희)는 현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수렴하여 만든 우리들의 교과서(철수와 영희)이다. 이 작품은 욕망까지 통제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죄책감을 생산해내는 한국 교육 등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업이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작품들은 근대의 상흔이 가득한 인천과 부천을 중심으로 촬영되었다.

오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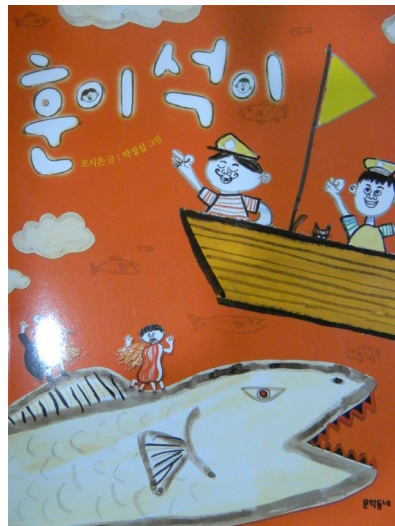
OH Si-eun

어린 시절의 꿈을 이어나가고 있는 오시은은 어린이 문학을 하고 있다. 『나를 낚추면 다 즐거워』(우리교육, 2010), 『하얀 얼굴』(공저, 창비, 2010), 『애벌레 너 딱 걸렸어』(디딤돌, 2009) 등의 작품이 있다. 2003년 제1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작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야기 창작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7



동수야 어디가니, 2010



훈이 석이, 2010



귀신새 우는 밤, 2008

오시은은 어린이 문학이 신화에서부터 과학까지 탐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오시은의 작업은 신화와 과학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작가는 어린이 문학을 통해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희망적인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인천
상륙작전

Incheon
Landing Operation

유광식

Y00 Gwang-sig

유광식은 마을을 형성할만한 일정 정도의 테두리에서 그들과 유영하며 부딪쳐 엮여지는 과정을 흥미롭게 기록한다. 2010년 개인전 〈일상의 연필〉(갤러리 FOX, 인천)을 비롯하여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사진을 무기라기보다는 나누어줄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도시 산책을 지속하고 있다.



송월동,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31.5x47.5cm, 2007

도시공간은 하나의 커다란 도서관이다. 그만큼 방대한 기억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인천 중구 일대를 중심으로 근 현대사적 흔적뿐 아니라 소시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지금'을 형성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로서의 인천을 단순히 구경꾼이 아닌 도시 산책자로서 능동적으로 거닐 것이다.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지도와 이정표를 텍스트 삼아 도시 공간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

유지환

YOO Ji-whan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유지환은 집단성을 추구하며 설치작업과 행위를 통해 현대인의 상실과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는 '회로도(回路島)'의 멤버이다. 2009년, 2010년의 행위 프로젝트 '화이트 몐(WHITE MOB)'은 한국실험예술제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다수의 개인전,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19



화이트 몐(WHITE MOB), 한국실험예술제 참가 행위 프로젝트 장면, 2010

유지환의 'WHITE MOB'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참여와 집단 퍼포먼스를 통해 거리에서 해프닝을 벌이는 작업이다. 일회적인 대중 참여를 넘어 대중을 단순 참여자가 아닌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 매체가 가진 편집성과 상품성을 배제한 리얼리티를 표현하는 행위 작업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작가의 내면적 정체성이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설치작업과 퍼포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일반인과의 소통을 이끌어 내는 그의 작업은 동시대의 삶과 사람, 현대인의 무관심과 익명성에 초점을 맞춘다.

윤석남

YUN Suk-nam

윤석남은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주의 미술가로서의 역할을 진지하게 수행해 온 인물이다. 그는 여성주의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평등사회를 향한 페미니즘의 목표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런 활동은 현대미술을 지탱해 온 순수성의 개념과 당연한 전제들에 도전하는 것이다.



1,025, 나무조각, 가변설치, 2011

윤석남은 어머니와 여성, 평화에 대한 담론을 다루며 여성주의 미술의 대모로 불린다. 그는 작품 〈1,025〉를 비롯하여 유기견에 관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버려진 개’에 대한 단상을 적은 약 70여 쪽의 화선지 화폭과 더불어 1,025마리의 개 형상의 조각이 설치되는 〈1,025〉는 버림받은 개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굿’과 같은 작품이다. 온 나라가 구제역의 몸살을 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술작품을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메시지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2년 강원대학교 회화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네덜란드 예술학교(Dutch art institute)에서 순수예술(Fine art)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개인전 〈일상적 선언: 만나요, 우리 도.서.관(圖.書.館)〉(서울) 등 다수의 그룹전과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전혀 맥락이나 관계가 없던 것들을 서로 통역시켜 줌으로써 그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작가이다.



특별한 날의 리하설-강릉-2010.12.31 11:52pm, 디지털 사진 영상설치, 가변크기, 2010

작가로서 본인의 위치는 명확히 정의하기 힘든 여러 경계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점에 있다. 그 경계들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드러내지 않았기에 더 복잡해지고 모순적이고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랬기에 외부 자극으로부터 더더욱 오랫동안 자신의 의견을 길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 모든 입장을 인지해보고 그 안에 접점을 찾는 관계적 입장이었기에 매개적 존재로서 위치할 수도 있었다. 마치 다른 입장을 소통해내는 통역(번역)이자, 연결지점을 이끌어내는 가이드로서 말이다.

독산1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폐기 될 하얀 오브제’ 프로젝트는 지역 내에서 타자화되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매개로 제도권 미술 안에서의 오브제와 공공 안에서 유통되는 일상 사물 간의 간극을 새롭게 통역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미술과 지역기반 미술이 새롭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접점이 찾아지리라 믿는다.

윤중강

YOON Jung-kang

국악평론가 1호라고 불리는 윤중강은 다양한 분야를 기반으로 하며 문필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섯 권의 평론집을 냈으며 다수의 공저를 펴냈다. 현재는 국악방송의 이사로 활동하며 〈꿈꾸는 이리랑〉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상
록
작
展



국악을 방송에 담다, 2004



가치와 취향을 넘다, 2004



국악이 내게로 왔다, 2005

윤중강은 전통이 현대와 소통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하며 현재 〈윤중강의 핫! 이슈〉를 연재하고 있다. 아이돌부터 신한류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다.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한다.

Incheon
Landing
Operation

이민경

LEE Min-kyung

이민경은 2001년 대구 영남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2006년 미국 크랜브룩 예술대학원(Cranbrook Academy of Art) 프린트 미디어학과(Screen Printing)를 졸업하였다. 23살 이후 도미하여, 수많은 자리바꿈이 반복되면서 좀 더 확고한 종류의 섬이란 존재하는가, 유목의 삶을 사는 이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의 종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반복해오며 작업을 대하고 있다.



광야로 가는 문(Door to the desert),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165x150cm, 2009

이제까지 나의 장소에 대한 관심과 작업의 개념이 된 노마디즘과 이주에 대한 사유는 크리스천 세계관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창조주가 부여한 인간의 정체성이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떠돌다 창조주가 예비한 또다른 도시로 돌아간다는 컨셉이 작업의 배경이다. 나의 작업에서 '공간'은 친근한 소재이며 작업실 없이 수없이 이주해야 하는 나에게 사진은 가장 적절한 매체이다. 그 동안 살던 실제 공간을 미니언처로 제작하는 것이 나의 작업인데, 미니언처는 사진을 통해 평면적으로 구현된다. 채집된 이미지가 조합과 합성의 과정을 거쳐 가상의 공간이 평면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봄순

LEE Bommsoon

2003년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학사졸업과 동시에 ‘대인공간 풀’ 신진작가 공모에 당선되어 개인전을 연 바 있다. 영국 현대미술에 매료되어 이듬해 영국으로 떠나 노팅엄 트렌트 대학 (Nottingham Trent University)에서 순수예술(fine art)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영국생활은 이봄순이 언어와 시각적 지각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예술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 작가와 관객과의 관계, 그리고 현대미술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했다.



캐비닛(Cabinet), 스테인레스 스틸, 42x30x42cm, 2001

나는 드로잉, 설치, 디지털미디어, 글쓰기, 사진, 조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렇게 얻은 지식과 자기인식과의 관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해왔다. 나의 작업을 움직이는 것은 일상적 상황, 공간 그리고 사물에서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힘이다. 이 주의력은 전통과 이데올로기적 전제 또는 제도화된 관행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든 확정지으려 하지는 않는다. 또한 솔직함과 해학으로 일상의 사회구조에 접근하려 한다.

이승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0년 <크립토 뮤지엄(crypto-MUSEUM)>(갤러리 잔다리, 서울), 2009년 <마스터피스 바이러스(Masterpiece virus)>(원도우 갤러리, 갤러리 현대, 서울), 2008년 <미확인동물>(테이크아웃 드로잉, 서울) 등의 개인전과 2010년 <레지던스 퍼레이드>(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자치구역 1-130>(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 본관, 서울)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가 하였다. 국립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6기,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한 바 있다.



명화바이러스 004, 장지에 먹, 138.5x212cm, 2008

나의 작업은 미지의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다. 미지의 생명은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태어나고 자란다. 의식 깊숙이 숨어있던 미지의 생명들은 나의 부름을 받아 동물이나 식물을 닮은 모습들로 나타난다. 그들이 자라는 과정은 경험으로부터 연상된 이미지들이 살을 붙여 나가는 무의식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숨어있던 이미지의 파편들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슬그머니 나타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이한 생물의 형상으로 자라간다.

마스터피스 바이러스(Masterpiece Virus)는 이미 하나의 권력으로 규정된 명화에 미확인 동물을 마치 바이러스처럼 투입시켜 명화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를 흔들고 우리의 의식을 환기시키는 작업이다. 이미지에 권력을 부여해 준 미술관의 형식을 다시 이용함으로써 우리 의식 속에서 고정화, 권력화된 명화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도전한다.

임선이

IM Sun-iy

임선은 1971년 대전에서 출생하였으며 중앙대학교 조소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은신처(shelter)”라는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연 후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6~2007년 국립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5기 입주작가로 활동하였으며 2008~9년에는 서울시립 난지미술 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하였다. 다양한 매체에 접근하여 표현의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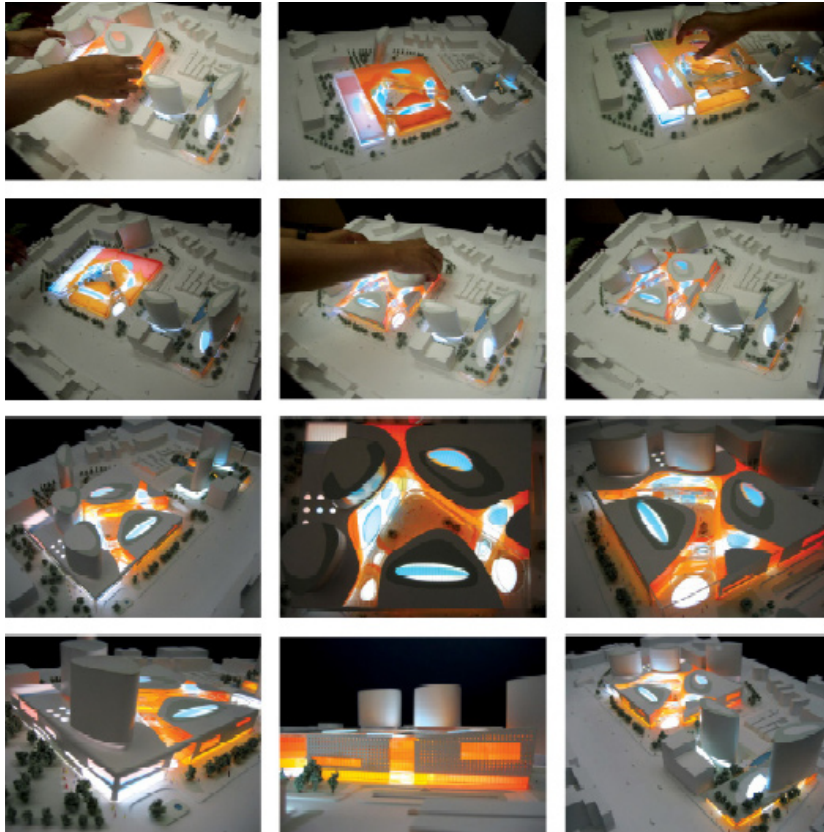
기술하는 풍경, 라이트젯 C-print, 123×155cm, 2008

풍경에 관여한다는 것은 마치 고정된 관념으로부터 탈출하듯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변적인 공간을 어떻게 파악할 것 인가하는 인식의 문제, 그리고 행위자의 태도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풍경은 단지 그 곳에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통해 비로서 의미가 부여되는 하나의 시스템의 망각적 활동이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작인 ‘삼초점 시선(Trifocal sight)’ 시리즈까지 작업의 큰 줄기로 작용한다. ‘삼초점 시선’은 산의 등고선이 프린트된 지도들을 추적하여 어떤 형태의 틀을 얻은 다음, 선을 따라 커팅하여 정교한 형태의 매스를 얻어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형태를 파내고 남은 공간이 만들어내는 네가티브적 풍경을 이용하여 대상의 입체적 구현을 시도하였다. 이는 기계적 시각으로 다가선 풍경에 대한 수리적 읽기의 접근 방식과 시대마다 변화하는 존재의 의미를 조각과 사진의 매체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조슈아 로버츠

Joshua Roberts

조슈아 로버츠는 미국 휴스턴의 라이스 대학교(Rice University)에서 건축을 공부한 뒤 시카고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역사, 미술 이론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 대학(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홍콩대학에서 교환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며 홍콩의 디자인 잡지 편집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항주 상그리라(Hangzhou Shangri-La), 항주, 중국, 2006

항주의 서쪽 호숫가에 위치한 상그리라 호텔을 위한 건축 계획안 : 도보자들을 실내로 유입시켜 플라자 쪽으로 유도하는 구조이다. 중심의 원형 구조가 쇼핑몰과 위 층을 연결하고 타워는 호수쪽으로 전망이 탁 트이도록 설계하였다. 쇼핑몰은 '매끈한 외부'와 '생기넘치는 내부'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도록 하였다. 내부에도 실외 공간이 들어서도록 하여 공간감과 활용도를 높였다.

조 습

JO Seub

조습은 경원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2010년 〈컨테이너〉(카즈, 오사카, 일본), 2008년 〈누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갤러리2, 서울) 등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하였으며 2005년 제13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관광체육부)을 수상하였다.



5.16, 디지털 라이트젯 프린트, 127x101cm, 2005

후기 자본주의의 현실 속에서 주체의 이성적인 응전이 불투명해지는 지점에서 나의 작업은 출발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충돌지점에서 뜻밖에 만나게 되는 아이러니한 주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유쾌하면서도 불온한 상상력을 통해 내가 연출하고 있는 것은, 이성적 주체의 안락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상호 이해의 지평으로 건너가기 위해 가로질러야만 하는 어떤 불모성에 대한 것이며, 그 불모성 속에서도 꿈꿔야 하는 새로운 주체이행과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타케시 모로

Takeshi Moro

타케시 모로는 미국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시카고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사진을 공부하였다. 2011년 시카고의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을 포함하여 4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수의 기획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2011년 웨クス너 센터(Wexner Center)에서 열린 필름, 비디오, 뉴 미디어 페스티벌(Film, Video, New Media Festival)에서 수상하였으며, 시카고 현대사진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Photography), 메리 제인 제이콥 재단(Mary Jane Jacob Curatorial Collection)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29



앨드린(Aldrin), HD 비디오, 5분, 2010

나의 관심사는 어떻게 몸짓이라는 것이 자기표현과 자기반성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절하기'라는 제스처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참여자로 하여금 카메라 앞에서 개인적인 유감이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그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절'이라는 것은 겸손함이라는 것에 틀을 만들어 주고 누구든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덕목을 일깨워 준다. 뿐만 아니라 절이라는 제스처는 우상(아이콘)의 개념을 내포한다.

현태준

HYEON Tae-joon

현태준은 1989년 서울대학교 공예학과를 졸업하였다.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수필가이자 장남감 연구가, 현대미술 아티스트이다. 2007년 개인전 〈현태준의 국산품전〉(갤러리상상마당, 서울)과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빨라라 대행진〉, 〈아저씨의 장난감 일기〉, 〈현태준의 대만 여행기〉, 〈오늘도 빨라라〉 등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우주소녀 아...부지, 지 피그먼트 잉크프린트, 60X84cm, 2007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좋아해 중학생 때부터 직접 만화를 그리기도 했지만, 공부에 방해되니 앞으로 만화를 그리지 말라는 꾸중을 듣고 더 이상 만화를 그리지 않게 되었다. 그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지난, 서른다섯 살 때부터 우연한 계기로 다시 만화를 그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과 전시에 만화와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다. 이웃 할아버지네 문방구에서 장난감을 만난 이후로 우리나라의 장난감을 수집, 보존, 연구하게 되어 그동안 모아온 수만 점의 장난감과 생활유물들을 모아 파주 헤이리에 '20세기 소년소녀관'과 홍대 앞에 '빨라라수집관'을 열었다.

미국 시카고 미술대학에서 시간 예술을 전공한 홍성민은 현재 계원예대 교수로 <미디어 앤 퍼포먼스> 트랙을 운영 중이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 인포아트 전시부터 부산비엔날레, 후쿠오카 트리엔날레까지 40여회의 국내외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2005년 인사동의 쌈지길을 이용한 대형 실험극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 벨기에 안트워프의 레지던스에 거주한 경력이 있으며 2010년부터 웹사이트 '포도Podo'와 이태원의 '공간 해밀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줄리엣(Juliettttt), 시어터 퍼포먼스 기록영상, 35분, 2010

<줄리엣(Juliettttt)>은 셰익스피어의 고전적 비극에 대해 다원적인 해석을 하고자 홍성민이 기획한 작품이다. 홍성민은 이 작품을 위해 다섯 명의 연출가(남주경, 김진경, 김수희, 원춘규, 박혜선)에게 각각 한 명씩의 연기자(김혜지, 이주영, 추은경, 김요아, 이지현)를 할당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여주인공 즉 줄리엣 역을 연출하도록 했다. 이 극은 담당 연출가의 연출 지시를 수행하는 다섯 명의 여배우들의 연기로 구성된다. 특이할만한 점은 다섯 명의 줄리엣이 동시에 하나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대사와 동작에 충실하게 연기를 한다는 점이다. '일인다역'이 아닌 '다인일역'인 셈이다. 무대 위에는 로미오도, 다른 인물들도 등장하지 않고 의자 외에는 그 어떤 무대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연기는 타 연기자와 하모니를 이루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한다.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해안동 일대에 조성된 복합문화예술 매개공간입니다. 근대 개항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립된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편리한 창작과 연구 및 거주 공간을 지원하고 작가들의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각예술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문예창작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비평가, 큐레이터 등의 연구 활동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예술 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입주예술가들의 창작의 결과물을 일반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의 창작, 유통, 향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매개공간으로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국제 문화예술 교류에 이바지 해 나갈 것입니다.



E1

배진호
01

오민수
02

조 습
03

2011/03 - 08
홍성민
21

이승현
22

공동작업실

- 10. 이민경 2011/03 - 08
김혜지 2011/09 - 2012/02
- 12. 윤주희 2011/03 - 08
임선이 2011/09 - 2012/02
- 15. 타케시모로 2011/06 - 08
다나올라레스큐 2011/12 - 2012/02
- 17. 김태은 2011/02 - 08
김영욱 2011/09 - 2012/02
- 20. 조슈아 로버츠 2011/06 - 08
사샤폴 2011/12 - 2012/02

E2

김태준
06

Guest house 1
박석태

2011/03 - 08
유지환
04

오석근
05

국제교류실
09

Guest house 4
윤중강

박영숙
07

윤석남
08

12

Guest house 7
오시은

10

현태준
11

E3

작가 휴게실

유광식
14

손혜민
13

15

이복순
16

국제교류실
18

17

2011/03 - 08
박하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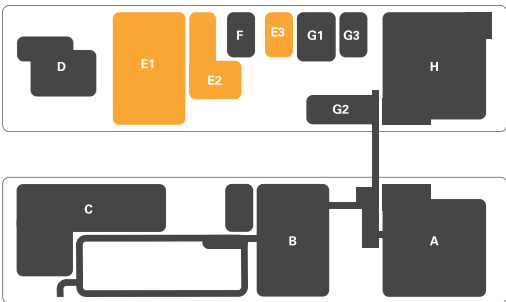
20

1F

2F

3F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최적의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작업실을 제공한다. 물리적인 공간 지원 외에 홍보 지원, 프로젝트 수행 지원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플랫폼 살롱(입주 작가 프리젠테이션 리서치 투어)
비평가/입주작가 1:1 매칭 프로그램 프리뷰전,
오픈 스튜디오 및 결과 보고전 등 다양한 전시지원**

아카이빙 프로그램

인천아트플랫폼은 문화 예술 전반의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자 아카이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입주작가들은 물론 현대예술을 이끄는 동시대 작가들의 포트폴리오와 관계 자료를 구비하여 자료화/목록화하는 포트폴리오 레지스트리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예술 창작 활동의 과정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각종 도서와 영상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지식과 자료의 집적 기능을 수행한다.

기획 프로그램 (전시, 공연, 학술)

인천아트플랫폼은 새로운 예술의 경향을 탐구하고 논의를 이끌어내는 자체 기획 전시, 공연, 행사 등을 개최하여 기관의 창의력을 발휘함으로써 대중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국제세미나, 워크숍, 비평회와 같은 학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와 예술의 이해와 소통에 이바지한다.

시설현황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규모 2단지,
13개동, 지하1층~4층
I 대지면적 8,450.3㎡(2,556.22평)
I 건축연면적 5,593.43㎡(1,692.01평)

주요시설

스튜디오 22실, 공동작업실, 전시장, 수장고,
공연장, 교육관, 게스트하우스, 아트&디자인
스튜디오, 아카이브

2011, 인천상륙작전

2011 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2011. 03. 12(토) – 2011. 05. 29(일)

인천아트플랫폼 크리스탈큐브, B동 전시장 외

Incheon Landing Operation

2011 Incheon Art Platform

Preview Exhibition of 2nd Residency Artists

발행처 인천아트플랫폼

발행인 송영길

편집인 이승미

발행일 2011.03.07

디자인 that's design studio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원고의 저작권은 해당작가와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이미지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아트플랫폼, 2011

인천 중구 해안동 1가 10-1 T. 032.760.1000 F. 032.760.1010

www.inartplatform.kr



인천아트 플랫폼

400-021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1가 10-1
032-760-1000

INCHEON ART PLATFORM

10-1 Hae-an-dong 1ga,
Jung-gu, Incheon, S.Korea 400-021
+82-32-760-1000

www.inartplatform.kr